

화순군, 농업인 월급제 시행...월 최대 250만원

다음달 20일까지 관내 농협에 신청...약정 구매대금 일부 월별 지급

화순군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소득의 대부분은 가을철에 편중돼 있어, 많은 농업인이 대출을

받아 봄철 영농준비 자금과 자녀 학자금, 생활비 등을 충당하고 구매대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이에 화순군은 농업인들의 소득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농업인들이 필요

한 시기에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농업인 월급제(매 출하 선급금)를 시행하고 있다. 농협이 출하 계약한 벼 구매금의 60%를 월별로 나눠 선지급하면 화순군에서는 농협에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희망하는 농업인은 4월 20일까지 화순군과 협약을 맺은 관내 농협(화순·농주·도곡·동북·천운)을 방문해 구매 약정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월 급여는 4월부터 최대 8개월간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농가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월 최대 지급액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높였다.

지난해에는 26개 농가가 농업인 월급제에 참여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은 농산물 수확 전까지 일정한 소득이 없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한 사업이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농가들의 가계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담양 무정면, 제76회 식목일 기념행사 개최

연산홍·철쭉 등 3200여 주 식재

담양군 무정면은 최근 무정면 옹골공원 앞 소공원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제76회 식목일 기념 꽃동산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로 개최해 20여 명이 참석했고 무정면 관문인 옹골공원 앞, 주요 도로변, 면사무소 주변 등 5개소에 연산홍, 황금사철, 샤프스타데이지, 크리산세뭉, 시네나리아, 로벨리아, 철쭉 등 3,200여 주를 식재했다.

이경모 무정면장은 "주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과정을 통해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겼다"며 "생태도시 담양에 걸맞은 사계절 꽃피는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곡성군, 섬진강 '물멍' 즐기는 섬진강변 농촌여행 트레일워킹

1박2일 1인당 36000원

"분분한 빗꽃과 봄의 초목이 아른거리는 섬진강을 걷다보면 발걸음은 시간을 재촉하지 않는다."

곡성군이 섬진강 '물멍 트레일워킹'을 선보인다. '물멍'은 말 그대로 물을 보면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한적한 농촌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 또한 복잡한 것을 잊고 잠시라도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경향도 생겨났다. 그래서 봄, 물멍, 산명 등 각종 '멍' 때리기가 유행이다.

곡성군의 '물멍 트레일워킹'도 그 중 하나다. 1박 2일 코스로 진행되는 '물멍 트레일워킹'은 첫째 날 약 4시간 정도 섬진강 일대를 걸으며 섬진강에 비친 봄의 풍경을 즐길 수 있다. 걷다가 허기가 질 때에는 로컬푸드 도시락이 제공된다. 걷은 후라 맛있는 견지, 풍경 때문에 맛있는 견지, 원래부터 음식이 맛있던 견지인지 이유를 알 수 없다. 트레일 워킹이 끝나면 농촌민박에서 요란하지 않게 하루의 끝을 마무리한다.

둘째 날 아침에는 지역 먹거리로 만든 아침 도시락이 숙소로 배달된다. 낯설면서도 오래 전부터 먹어오른 음식

처럼 건강한 맛이다. 아침을 먹고 '읍내 자유투어'라는 명목으로 지역 시내를 탐방한다. 지방에서는 도심지를 '시내'라고 한다. '시내'라고 해서 대도시의 빌딩숲을 생각하면 오산이다. 시간과 기억의 흔적이 여기저기 묻어있는 작고 아담한 가게들이 점점다. 지급 받은 '심정 상품권' 2만원으로 이것저것 사보기도 하고, 동네목욕탕, 오래된 이발관, 시장 등을 산책하듯 거닐다가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간다.

곡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지역 단위 농촌관광공모사업인 '농촌애(愛)올래'에 선정된 바 있다. 이후 '곡성 여기에(愛)'라는 농촌여행 브랜드를 론칭하고 지역주민, 로컬푸드, 환경을 아우르는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물멍 트레일워킹'도 그 일환이다.

이번 물멍 트레일워킹 여행비용은 총 경비 중 70%가 지원된다. 따라서 1인당 36,000원이면 참가할 수 있다. 신청은 협동조합 섬진강두꺼비(061-363-5650)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2021년 4월 25일까지 '그리곡성' 홈페이지나 인터넷 예약(<https://booking.naver.com/booking/5/bizes/110194>)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곡성=양해영기자

구례군, 여객터미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공모 선정

사업비 2억4천만원 확보... 모두에게 편리한 구례버스터미널 조성

구례군은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여객터미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 시설물이나 특정 지역을 접근하거나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례군은 국비 1억2천만원 등 총 2억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약자를 포함한 군민들이 구례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화장실 리모델링, 출입문 자동문 설치, 출입구 및 주변 접근로 정비, 대합실 및 안내관 정비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방안이다.

구례버스터미널은 2012년 기존 민영 터미널을 공영으로 전환하면

서 새롭게 한옥으로 신축해 어느 시군에 뒤지지 않는 깨끗하고 안전한 건축물로 구례를 찾는 관광객이 처음으로 대하는 관광구례의 대표 얼굴이다. 그러나 준공 10년이 지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이 꾸준히 제기되어 일부 시설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버스터미널 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는 물론이고 군민과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구례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나주시, 농기계 종합보험료 80%지원

영농철 이전 가입독려

나주시가 본격 영농기를 앞두고 농기계 작업 사고에 대비한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농가에 독려하고 나섰다.

26일 나주시에 따르면 농기계 종합보험은 추락·화재·침수 등에 따른 농기계 손해, 신체 사고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을 보장한다.

시는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과 가입을 제고를 위해 작년부턴 보험료 총액의 80%(국비50%, 지방비30%)를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보장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팩트, SS농약분무차량,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드론을 포함한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로우더로 총 12개 기종이다.

가입 대상은 해당 농기계를 소유한 만 19세 이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관내 모든 농협에서 연중 신청을 받는다.

농가는 가입일로부터 1년 간 '농기계 1대 당 1개 계약' 체결을 통해 농기계 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대물 배상,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특약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농가는 가입 시 보험료 총액의 20%만 부담하면 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보험료 100%를 전액 지원한다. 시는 2020년 000농가, 농기계 1726대에 대한 보험료 9억7000만원의 자부담분(30%) 1억1000만원을 농가에 지급한데 이어 이번 주 안으로 미지급 892농가에 1억4000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기동취재본부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곡성군 농정과 유통양정팀 061) 360 - 7183

곡성토란 GOKSEONG TARO